

## 아빠, 그게 아니에요!


영광군 영광중앙초등학교 4학년 1반 김혜현

아람이네 아빠는 담배를 무지무지 좋아하세요. 언제나 담배를 피우시는 바람에 아람이에게 뽀뽀를 해주실 때도 담배냄새가 나신답니다. 아람이는 그런 아빠가 정말 싫었어요. 그래서 담배 좀 피우지 마시라고 말씀을 몇 번이나 드렸건만 아빠는 “그런 소리 말아라. 담배가 얼마나 맛있는데 그래.” 하시고 계속 피우시는 거예요. 아람이는 담배가 맛있다는 아빠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전에 삼촌에게 담배 맛을 물어봤을 때는 담배가 맵고 한번 피워보면 다시는 담배에 손도 대지 않을 맛이라던데……. 아람이도 삼촌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했어요. 담배연기에서 매운 냄새가 나거든요. 아람이는 언젠가는 맘 크게 먹고 담배 냄새가 나는 아빠가 정말 싫다고 말씀드리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리 쉽지는 않았어요.

아람이는 이제 5학년으로 올라가면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늘었어요. 그리고 아빠도 일이 많아졌는지 아람이가 잠들고 훨씬 지난 시간에 들어오셨어요. 일요일요? 일요일에는 잠만 주무세요. 일주일동안 부족했던 잠을 보충해야 된다면서요. 그래서 아람이는 아빠의 잠을 깨울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아람이의 아빠는 먼 곳으로 한달 동안 출장을 가셔야 하는 일이 생겼어요. 아빠는 한달 동안 볼 수 없다며 동생 아람이 먼저 뽀뽀를 해주신 다음 아람이에게도 뽀뽀를 해주시려고 했어요. 그러자 아람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아빠! 담배 좀 그만 피우세요! 아빠는 질리지도 않으세요? 나는 아빠가 정말 싫어요!” 하고 말했어요. 그러자 아빠는 충격을 받으셨는지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나가버리셨어요. 평소에 아빠를 무지 좋아하던 아

람이는 화가 나서 그날 이후로 아람이 하고는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람이는 아빠에게 너무 심하게 한 건 아닐까 생각도 했어요. 그러는 사이 한달이 지나고 아빠가 돌아오셨어요. 아빠는 아람이에게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람이는 아빠가 나 때문에 화가 나셨나보다 하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람이는 편지를 썼어요. ‘아빠, 죄송해요.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아빠가 싫어서 그런 게 정말 아니구요. 담배 피우는 아빠를 보면 돌아가신 할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우리 아빠도 담배 많이 피우시다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 때문에 아빠의 담배 냄새가 싫었던 거예요. 한달 전의 일 정말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이튿날 아침 아람이는 그 편지를 아빠의 구두 속에 넣어 놓았어요. 그날 저녁 아람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편지를 아빠가 읽었을까 궁금해서요. 그런데 아람이 방문을 열고 누군가가 들어왔어요. 아람이는 얼른 눈을 감고 자는 체 했어요.

그런데 누군지 궁금해서 살짝 실눈을 떠보니 아빠였어요. 아빠는 아람이의 실눈을 눈치 못 챌 듯 아람이에게 뽀뽀를 해 주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기쁠수가! 아빠에게선 더 이상 담배 냄새가 나지 않았어요. 아람이는 너무 좋아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아빠가 나가시자 아람이는 “아빠가 내 편지를 보셨구나!” 하고 중얼거리고 안도의 숨을 쉬며 편안히 잠이 들었어요. 아람이는 그날 밤 꿈에 아빠와 꽃밭에서 헤어져 있던 한달 동안 있었던 얘기를 나누면서 아빠와 함께 뛰어 노는 꿈을 꿴습니다. 



# 아빠 방은 흡연구역

금 상

서울 을지초등학교 5학년 2반 남수지

“수지야, 이제 곧 할아버지 생신인데 선물 생각해 놓은 것 있니?”

“정말, 그러네...”

‘어떤 선물을 드리면 기뻐하실까?’

우리 할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많이 아프십니다. 걷지도 못하고 말씀도 잘 못하셔서 할아버지를 위한 선물은 참 어렵습니다. 특히 올해는 70회 생신이니 더더욱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때 엄마께서 저희에게 아주 좋은 선물을 알려 주셨습니다.

“수지야, 우현아, 이사 온 우리 집도 궁금하시고, 너희들의 생활도 보고싶을 것 같고, 아빠가 근무한 곳도 보고 싶어하실 텐데..., 너희 카세트 테이프와 비디오에 모두 담아 선물해 드리면 어떨까?”

대찬성을 하며 그날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축하노래와 편지, 우리의 솜씨자랑, 집안 구석구석다니며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빠 학교로 가 비디오를 찍는 일만 남았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아빠가 일하시는 곳과 모습을 보면 아주 좋아하시겠지? 많이 보여드려야지.’ 하며 신나게 갔습니다. 드디어 학교에 도착해 아빠 방을 두드리려는 순간,

‘금연포시네?’ 반가운 마음에 우현이에게

“우현아, 아빠가 드디어 담배를 끊기로 하셨나 봐. 저것 봐.”, “누나, 어디?”

하며 내가 가라기던 곳을 본 우현이는 “이게, 이게 뭐야. ‘흡연구역’ 표시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를 세계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흥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동안 아빠께 금연 머리띠를 두르고 캠페인도 벌이고, 시와 편지도 써 드렸는데...

엄마와 우리는 기쁜 날 할아버지께서 좀 속상하시겠지만 그래도 이것도 짝자고 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도움을 받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 표시 보이시죠? 아빠 담배 그만 피우라고 혼 좀 내주세요, 알겠죠?”

씩씩대며 할아버니, 할머니께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빠 방을 세계 두드렸습니다. 아빠는 우리를 보며 반갑게 웃으며 맞이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빠를 보자마자

“아빠, 저게 뭐예요?”

“아빠, 담배가 그렇게 맛있어요? 우리는 아빠가 담배로 아프실까 걱정되는데...”

“아빠 담배가 우리 몸에 얼마나 해로운지 모르세요?”

“우리 저 표시 다 찍었어요, 다음에 할머니께 혼날 거예요.” 하며 실새없이 சொ였습니다. 아빠는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전 아빠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단 참기로 했습니다. 그리고는 아빠 방과 공부하는 모습, 우리가 책을 읽는 모습 등을 찍었습니다. 우리는 방송국 취재기자가 되어 아빠를 취재하기로 했습니다. 아빠는 취재 도중 책보다도 학생들보다도 우리 가족을 가장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전 그 말씀을 믿습니다. 열심히 일하시는 아빠, 바쁘신데 금연부터만 빼고 엄마와 우리 부탁을 들어주려 애쓰시는 아빠, 그래서 존경하는 우리 아빠, 전 아빠를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꼭 금연하시게 우현이와 담배 끊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첫째, 담배를 하나 피울 때마다 수첩에 정를 쓴다. 그래서 하루에 몇 개 피웠는지 수를 세어 본다. → 그 결과를 보시면 아빠도 아마 놀라실 거예요.

둘째, 만약 하루에 10개비 이상 담배를 피우면 그 두 배의 수만큼 길거리에서 담배 풍초를 줍는다. → 아빠, 너무 많이 주워 허리가 아프면 안 되겠죠?

셋째, 아빠 방에 금연구역이라 고쳐 달고 담배를 끊었다고 소문을 낸다. → 담배 피우는 모습을 누가 보면 창피하겠죠?

넷째, 아빠와 아빠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이 담배 때문에 아플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 그럼 정말 안 되겠죠?

이 네 가지 방법을 아빠께 보여드리려 합니다. 이렇게 까지 했는데도 아빠가 계속 담배를 피우신다면...! 그럴 일은 분명 없을 겁니다. 